

■ 제8회 전직원 체련대회 및 CI 선포식 개최

우리 협회 전직원의 체력증진과 단합을 위한 체련대회가 3월 28~30일(2박 3일)간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는 모였다. 모이면 하나다. 하나면 발전한다.’라는 전직원의 구호 속에 시작된 체련대회는 첫날 소양교육, 혈액사업설명회, 부서별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29, 30일에는 본격적인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족구, 손족구, 줄다리기, 릴레이, 단체줄넘기, 캥거루 릴레이, 피구, OX 퀴즈 등 8개 종목으로 펼쳐진 경기에서 종합우승은 부산산업보건센타, 종합 준우승은 전북산업보건센타, 종합 3위는 서울산업보건센타가 차지하였다.



또한 협회의 새 CI 선포가 이루어져 더욱 발전하는 협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1세기 한국 산업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선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심볼마크는 협회의 웅비하는 힘찬 도약을 상징하며,

협회의 사업홍보와 보다 좋은 이미지 형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협회의 경쟁력 강화를 증대시킬 것이다.



■ 2001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시상 및 특별포상

우리 협회의 2001년도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데 대한 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사업목표달성을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사업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전직원 체련대회 기간 중 시행되었다.

우수부서 포상은 의정부센타 총무부, 수원센타 건강진단과와 보건대행과, 광주센타 산업위생부가 차지하였으며, 안산센타는 신설센타 격려포상을 수여하였으며, 경북센타 한승룡 대리 외 69명에게 신규유치사업 특별포상이 이루어졌다. 협회는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업무를 수행한 부서 및 직원을 선발·모범으로 삼아서 올 한해도 전직원이 협회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 ‘작업관련성질환관리’, ‘소규모사업장 건강위험 요인관리’, ‘스트레스 관리’ 전문교육 실시 예정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이 '작업관련성질환관리(4월 8일~10일)', '소규모사업장 건강위험 요인관리(4월 11일~13일)', '스트레스 관리(4월 22일~24일)'의 프로그램으로 4월중 실시된다. 특히 '소규모사업장 건강위험요인관리'는 Clean 3D 담당자 전문화교육 과정으로 Clean 3D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 작기협, 특기협, 보건관리대행협, 일기협 정기총회 개최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로 암프라자에서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1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 200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과 임원변경이 있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협의회 해산을 의결하였다.



작기협	회장	백남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임
	부회장	안규동	순천향대의대 교수	신임
	감사	김정만	동아대의대 교수	유임

보건관리	회장	조규상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회장	유임
대행협	부회장	이채언	인제대의대 교수	신임
	감사	김해준	고려대의대 교수	유임

일기협	회장	김돈균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사업보건센타	유임
	부회장	김성천	서울의과학연구소장	유임
	부회장	최병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상임부회장	유임
	감사	노재훈	연세대의대 교수	유임

■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에 염용태 교수 추대

특수건강진단의 기술개발과 진단방법의 개선 등 특수건강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개선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증진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의 창립총회가 3월 22일 개최되었다. 임원선출에서는 초대회장으로 염용태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추대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차봉석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최병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상임 부회장, 김준연 동아대의대 교수, 감사에는 서석권 계명대의대 교수, 정치경 가톨릭대의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